

미용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장영혜 · 조기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거창전문대학*

A Study on the Change in Beauty Environment

Jang, Young-hye · Jo, Ki-Yeu*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eochang Provincial College*
(2004. 1. 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beauty industry to meet its increased demand and liberated world markets more properly by analyzing the change of beauty environment by ages. For the Study, the literature and articles of costume and beauty, periodicals of beauty companies, and internet data were referred to review and analyze changing proceeds of beauty industries from the 1900 to the present by ag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We had the first barber shop and hairdressing salon in 1901 and 1920, respectively, after the Danbae Ryeong (A Crop Ordinance); modern education for women and active social movements resulted in change of hair styles; permanent wave tools and chemicals began to be used in the 1930s; and more people started to visit hairdressing salons after 1950s. In turn change of hair style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beauty technologies and the diversity of beauty tools and products. Now up-to-date instrument and products for the health of hair are developed, hairdresser provide kinder service for their customers and adjust their floor space accordingly, and, as shown in five-day workweek, are making their endeavors to improve wellbeing of their employees.

Key words : beauty shop(미용실), beauty environment(미용환경), hair beauty(머리 미용)

I. 서 론

인간의 생활양식과 미용과의 관계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 종교적 이념, 가치관, 윤리관 등도 미용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 시대, 그 문화권의 미에 대한 개념도 미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용은 그 사회의 생활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여성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대량 소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패션상품은 물론 미용상품의 수용을 증대시켰다. 특

히 정보와 통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헤어스타일은 세계패션시장의 스타일을 동시화 시키고 있고, 고객의 기대는 미용 기술 그 이상을 추구하게 되었다.

미용업의 특성은 소규모 업체들의 경쟁 과열로 매출이 불안정하여 여타의 산업과 달리 실제 업체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국내경제상황 아래 미용서비스와 관련한 변화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노동력제공자인 종업원의 불안정성 및 인건비와 자금조달 상의 문제는 업체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욕구증대로 인한 업소의 인테리어 고급화는 경영상의 문제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미용업은 타 업종에 비해 미용사의 개별점포소유

*Corresponding author : Jo, Ki-Yeu
E-mail: kyjo@kc.ac.kr

의 꿈을 실현시키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소규모 미용실의 난재라는 특성으로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계절적이고 패션 지향적인 산업특성상 매출이 불안정하다는 외적인 특성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미용업소가 안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과 인적자원관리의 어려움, 이직률의 증가, 생산성 제고의 한계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¹⁾.

이러한 양적인 팽창과 개방화된 국제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용환경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미용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00년대에서 현재까지 연대별 미용산업의 변화과정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복식 및 미용관련 서적과 논문, 화장품회사 정기 간행물,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II. 미용환경변화

1. 1900년대

1) 사회·문화적 배경

19세기말 서양 문물 도입과 천주교 및 기독교의 영향, 사회 개혁, 언론의 영향, 신교육의 실시 등의 문호 개방은 전통적인 관습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독립된 인격체가 인정받게 되었고, 동학의 영향으로 사회 신분 및 계급이 초월되어 인간 평등사상이 나타났다. 사회가 개혁되어 통상 수교의 거부가 끝나고 서양 문물이 도입되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와 교육 자체가 변화되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언론의 영향으로 1896년 독립신문 창간 이래 여러 신문들이 나오면서 패션의 유행 기사가 신문에 실리게 되었는데, 독립신문의 복식에 관한 기사에서 단발령과 군복에 대한 기사로, 교복과 단발을 개화의 상징으로 보고 부국강병을 위한 희망으로 보았다²⁾.

2) 미용사적 배경

1894년 고종 31년 일본을 위주로 한 개혁과 김홍집 내각은 갑오개혁을 단행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개혁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중 하나가 단발령으로 고종 자신부터 머리를 자르고 하이칼라 머리를 하면서 전국에 단발머리를 할 것을 명하였다³⁾. 1901년 서양식으로 조발을 하는 최초 이발소가 서울 인사동에서 개업한 것은 유양호가 차린 「동호이발소」이다. 후에 광화문으로 옮겨 이름도 「광화문이발소」

로 바뀌었는데 머리를 깎기보다 잔머리를 길러 상투를 다시 짜주는 일이었다⁴⁾.

2. 1910년대

1) 사회·문화적 배경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으로 일제(日帝)의 식민지화되면서 개화기 일련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이 이 시기에 들어 민족운동(民族運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일제 하에서 일어났던 물산장려운동, 각종 교육진흥운동, 산업진흥운동 등은 그 밑바닥에는 민족운동의 성격이 짙게 깔려있었다. 때문에 일제는 철저한 탄압으로 대응하였다⁵⁾.

2) 미용사적 배경

1910년대에는 쉐머리, 트레머리, 둘레머리를 많이 하였다. 또한 신교육을 받지 않은 젊은 여성들 속에서도 땡기머리에서 트레머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뒤로 간편하게 하나로 묶는 머리 스타일도 나왔다. 중년 이상의 여성층에는 쪽진 머리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여전히 쪽머리를 고수하였으며, 둘레머리, S자머리, 8자머리, 말뚝머리, 로루마끼 머리 등이 유행하였다. 남성의 머리 모양은 일본인들처럼 머리 전체를 다 깎거나, 서양 선교사나 외교관들과 같은 하이칼라였다⁶⁾.

3. 1920년대

1) 사회·문화적 배경

일제의 식민지정책 가운데서도 여성의 근대 교육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상을 등장시켰다. 신여성들은 여성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과 복식 개혁을 주장하였으며⁷⁾, 정책적으로도 표면적이기는 하지만 문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으므로 복식에서도 사회 환경적 영향을 받아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2) 미용사적 배경

1920년대 들어서면서 개화의 속도는 빨라지기 시작해 서구문물의 영향은 복식문화에까지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었으며 이 시대에 최초의 미용사라는 직업이 생기고 헤어 디자이너도 등장하였다. 찰스 네슬러(Charles Nessler)에 의해 고안된 퍼머는 1920년대

화장품을 팔던 백계 러시아인이 파마기구를 들여와 서울 정동의 집에서 히트퍼머를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그런데 한번 파마를 하려면 가격이 쌀 2-3가마에 해당하는 20원의 거액이었으므로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었다⁸⁾. 새로운 패션의 변화에 발맞춰 여성 전문 미용실이 1920년경에 등장하였다. 일본 여성들이 조선 땅으로 몰려들자 진고개에 일인이 경영하는 미용실이 6개나 들어서게 되었다⁹⁾. 또한 1926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여자미용원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 1929년 7월 8일자 기사에서도 조선사람이 처음 경영하는 미용원으로 머리미용보다는 메이크업과 피부관리를 주로 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4. 1930년대

1) 사회·문화적 배경

1929년 우리나라 여성들은 기미독립운동과 광주학생 사건을 계기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의욕이 더 높아지고 사회도 여성의 교육 문제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여성 운동이 급진적으로 다양해졌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 여성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문학,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

2) 미용사적 배경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최초로 오엽주가 1933년 화신 백화점 안에 화신미용실을 열어 경영하였다. 오엽주는 일본에서 미용공부를 하고 돌아와 광복 후에는 미용학원까지도 개설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이 경영하는 미용실이 화신 미용실 하나였으므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당시 퍼머값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서 한번 퍼머하는데 쌀 두섬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퍼머는 전기 퍼머로, 히트 퍼머라고도 하는데 열을 이용하여 웨이브를 만드는 퍼머먼트를 미용실에서 하였다. 퍼머뿐만 아니라 아이론, 마사지, 염색, 매니큐어까지 했고, 고객은 주고 기생들이었으며, 멋쟁이 신여성, 영화배우, 연극단 배우들도 주요 고객이었다¹⁰⁾. 1936년에 일본에서 퍼머기구를 들여오면서부터 퍼머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 퍼머는 숙발(淑髮)이라고 불렸으며, 한 개 40와트짜리 전구를 20개 가량 머리에 말아 20-30분간 암모니아수 퍼머액을 스며들게 했다가 푸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퍼머는 보수적인 한국인의 정서에는 일반화가 되기에 한계가 있었다¹¹⁾.

5. 1940년대

1) 사회·문화적 배경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광복 후 신교육제도 수립을 위해 1945년 10월 학교재개와 시기를 같이하여 설치된 교육심의회는 한국교육의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 정부 수립 후 1949년 12월에 공포된 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도 제도적으로 체제를 정비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는 여성지도자 중심으로 남녀평등과 여성권익보호를 위한 운동이 그 나름대로 펼쳐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후 분단국가로 되면서 우리 사회는 보수화 되어갔다¹²⁾.

2) 미용사적 배경

광복 후에는 주로 전기 퍼머를 하였는데 이북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전기를 전국에 공급해 주었으나 이를 중단하자 불퍼머를 개발하였다. 지금의 번개탄과 비슷한 것으로 손가락 크기 만한 연료를 가봉이라 했는데 그 가봉에 불을 붙여 퍼머 집게의 양쪽에 두 개씩 네 개를 넣어 은박지를 대고 머리를 말아서 퍼머를 하였다. 광복 직후에 미용업을 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신여성이거나 관리직의 부인들이었다. 또한 미용업의 권익보호와 친목을 위하여 미용조합연합회를 구성하였다. 광복 후 제일 먼저 미용학원을 개설한 사람은 오엽주였다. 그 뒤 임형성이 예림 미용학원, 권정희가 정화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미용인을 배출했다. 미용실을 개설하려면 학원 졸업증을 제시해야만 했기 때문에 미용학원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났다¹³⁾.

6. 1950년대

1) 사회·문화적 배경

1950년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웠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점차 질서가 잡혀서 다소 안정된 생활을 하려던 차 비극적인 6.25동란을 당하여 다시 사회가 혼란해지고 우리 문화전체를 잃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 전쟁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혼동이며 진통이었다.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끝났으나 여태껏 남자에만 의존하던 여성들도 직업전선에 나가

게 되었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정비석의 “자유부인”(1954)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하여 변혁기의 새로운 화제를 낳았다. 이렇듯 전쟁 후 한국사회는 미군이 남한에 진주한 후 군정을 통하여 미국 교육 제도의 도입, 미국적인 민주정치 제도의 도입에 의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아 해방의 물결이 들이닥쳤으며 불안정한 사회는 각종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2) 미용사적 배경

1950년대에는 퍼머넌트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퍼머를 할 정도였다. 특히 아이론을 이용한 단발형의 우찌마끼(안말음)와 소도마끼(바깥말음)가 대부분의 여성에게 선호되어 개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전기 퍼머와 콜드 웨이브 퍼머 같은 새로운 퍼머법이 소개되어 간편하게 퍼머를 할 수 있게 되어 퍼머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헤어스타일이 급격히 다양해짐에 따라 미용사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하였고, 각종 잡지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57년에는 박계국, 이정녀, 김춘자 여사가 중심이 된 「대한미용총연합회」가 발족되어 전국의 미용조합협회를 정비하였는데, 이 당시 9개구로 나누어진 서울의 미용실 숫자는 약 200개 정도였다고 한다¹⁴⁾.

7. 1960년대

1) 사회·문화적 배경

1960년대는 문화의 주체성 확립과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1950년대의 대외 의존 경제체제로부터 탈피하여 산업구조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1962년 이후 2차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라 공업화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 문화수준의 지표가 되는 전기, 전화, 신문, 텔레비전 및 전기기구의 보급이 확산되었다¹⁵⁾.

2) 미용사적 배경

1960년대는 기하학적 헤어커팅과 고데기의 사용으로 머리모양의 변화가 많았으며 여자 대학가에서 볼 퍼머 머리모양이 유행하였다¹⁶⁾.

미용인의 모임인 대한미용사회는 5·16 군사 혁명 후 위생관련업체를 모두 해체시켜 하나로 만든 사단

법인 대한 환경위생협회의 미용분과로 발족되었다. 그러나 서로 성격이 다른 환경위생협회를 하나로 묶다 보니 여러 가지 모순점이 드러났으므로 1965년 10월 대한미용사회를 다시 창립, 1966년 3월에 보사부로부터 사단 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미용사법은 1961년 12월 5일에 공포되었고, 1965년 이전에는 자격시험을 본 면허소지자가 아니면 이·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었는데 1965년부터 그 규정이 무시되고 자격증을 가진 미용사만 고용하면 미용실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미용의 관계부처도 여러번 바뀌었는데 건국 초기에는 내무부, 각 시청 위생과, 구청 사회과, 경찰서 보안과에서 관장하다가 5·16군사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다¹⁷⁾.

8. 1970년대

1) 사회·문화적 배경

1970년대의 정치는 10월 유신과 이에 대한 학생, 지식인의 격렬한 반체제 운동 등으로 긴장이 극에 달했으며, 남북관계도 대립의 양상이 지속된 시기였다. 70년대 초반 정부의 지속적인 공업화 추진 및 수출 위주의 정책과 70년대 후반 내수 시장 확장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70년대의 경제 성장은 양적인 규모의 확대는 물론 질적인 고도화가 추진되었으며, 전반적인 경제 발전은 내수 산업의 육성보다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 위주의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은 70년대 말부터 경기후퇴를 갖고 와 경제 규모상 양적인 성장위주로 한계성이 나타나 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제품 생산에서 고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¹⁸⁾.

2) 미용사적 배경

1970년대에는 커트의 개념이 긴 머리를 그냥 자른다는 개념에서 모발을 각도에 의해 나누어서 기하학적으로 자른다는 개념으로 완전히 정립되었다.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고 여성들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아이론과 세트에 의한 단단한 웨이브 구성이 서서히 사라지고 ब्ल로우 드라이란 가벼운 웨이브 스타일과 새로운 기구를 사용한 자연스러운 웨이브스타일이 나왔다. 한편 1972년 최수자가 미국 뉴욕 I.B.S (International Beauty Show)에 참가하여 입상하여 한국의 미용기술을 국제 무대에 처음 선보였고, 그 기술을 인정받았다. 1974년에는 미용계 최초의 미용 중

합지 월간 '현대미용'이 김창석에 의해 발간되었다¹⁹⁾.

9. 1980년대

1) 사회·문화적 배경

1980년대는 정치적으로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1979년에 있었던 석유파동까지 겹치게 되면서 불황과 인플레이션 현상은 심해지고 산업 전반에 무거운 압박이 가해졌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 5차, 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차츰 수출이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소득의 증대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국민생활은 안정과 풍요 속에서 70년대 외적인 면을 중시해온 거품 경제는 사라지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내적인 생활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행사, 해외여행 자율화 등으로 인한 국제교류와 여행을 통해 외국과의 문화접촉이 활발해지면서, 특히 미국문화의 수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아울러 현대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대와 생활영역의 확대는 생활 수준과 소득의 향상을 가져와 여가를 점점 더 중시하게 되었다. 또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칼라 TV 보급, 교복자율화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패션 안목이 높아지게 되었다.

2) 미용사적 배경

1980년대는 퍼머를 세टना 아이론을 위한 중간단계로 생각하던 이전단계에서 벗어나 퍼머 그 자체가 하나의 헤어스타일로 정착되었다. 또한 ब्ल로드라이어와 아이론을 대지 않고도 원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볼륨감과 풍성한 모양을 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룩드가 개발되어 머리모양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²⁰⁾. 1981년에는 대한 미용사회에서 '미용회보'를 발간하여 국내의 미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헤어디자이너는 예술가라는 긍지를 갖게 하였다. 또한 1892년 세계미용연맹(C.I.C : Confederation International de la Coiffure)과 O.A.I (Organization Artistique International de la coiffure)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36개 회원국의 일원이 되었다. 1984년에는 스트레이트 퍼머가 등장하였는데 긴 플라스틱 패널에 머리카락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단발머리나 컷트 머리에는 이것을 응용하여 셋팅롤로 머리를 말거나 플라스틱 패널의 끝 부분을 접는 롤 스트레이트

퍼머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컷트는 기법이 다양해져서 가위와 레이저(Razor), 클리퍼(Clipper)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감으로 표현되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고, 단발의 길이가 여러 가지 질감의 변화를 준 헤어스타일과 비대칭적의 디자인이 선보였다. 1980년대 초에는 여대생이나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바리칸과 레이저를 병용한 커트인 핑크 헤어 또는 디스코 머리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참신한 멋으로 유행하였다. 커트와 퍼머의 디자인이 다양해졌고, 새 질감 요구에 부응하는 최신 미용기구가 많이 나왔으며 무스와 젤이 보급되어 남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사용이 확장되었다.

또한 전체적인 머리의 염색보다는 악센트를 주거나 컬러의 조화가 돋보이는 대담한 컬러링이 미묘하게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컬러링은 헤어 패션에 필수적 아이템이 되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착되었다. 퍼머먼트의 종류가 많아져서 기본형의 퍼머부터, 편결 퍼머, 부메랑 퍼머 등 특수 로드를 이용한 퍼머가 성행하였다²¹⁾.

또한 양장점이 즐비했던 신촌, 이화여대앞거리, 명동의 변화가, 강남의 대형 아파트 상가가 미장원의 거리로 달라졌다. 또한 미장원에서는 고객확보를 위하여 세일을 하고, 머리스질만이 아닌 마사지, 피부미용 상담을 하는 등 서비스가 확대되었다²²⁾.

10. 1990년대

1) 사회·문화적 배경

1970, 80년대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성과에 힘입어 1990년대는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민주화에 따른 생활의 다원화로 급진전되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탈산업 사회적 기초가 마련되고 국제교류의 팽창에 따른 국제 의식이 성장하였다.

1995년 3월 1일, 보도, 교양, 오락, 영화 등 각 분야의 21개 전문채널이 일제히 본 방송을 개시하자 전국 50개의 종합유선방송국은 케이블을 통해 각 가정에 이를 송신했고, 케이블 TV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금의 신세대를 '신세대'라는 고유명사가 불도록 한 1990년대 초의 사회적 조건으로는 영상매체의 발달, 컴퓨터나 뉴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매체의 영향, TV나 비디오를 필두로 하는 대중매체의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한 대중상품의 일반화를 들 수 있다.

2) 미용사적 배경

1990년대에는 패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개성을 추구하는 풍조가 정착되는 시대이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스타일이 정착되는 연대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에 이르러 젊은 여성들은 헤어밴드와 핀을 사용하여 머리에 액센트를 주었으며, 헤어 컬러링은 더욱 다양해져 헤어 패션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또한 고유의 한 가지 머리 스타일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는 풍조로 가발의 사용이 확대되었다²³⁾. 또한 헤어트리트먼트와 퍼머약의 다양화, 셋팅퍼머기와 곱슬머리 피는 전문제품이 등장하여 미용업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신세대의 취향에 맞춰 미용실의 형태가 급변하면서 세련된 내부장식과 휴게실에 포켓볼테이블과 그네, 카테일바,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각종 서비스시설을 갖춘 미용실이 늘어났다. 93년말부터 들어온 외국체인 미용업체는 깔끔한 공간과 철저한 서비스로 고객층을 파고들었으며, 2백~3백평 규모의 대형 미용실도 생겼다. 미용에 문외한인 전문경영인을 두거나 종업원에게 사진, 영화, 외국어 등의 교양강좌를 여는 곳도 있다.

또한 국내 유명 미용실은 프랜차이즈사업부를 설치, 자사의 이름을 내걸고 전국적인 체인점을 모집하거나 두발화장품과 웨딩 산업 등 관련업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동네마다 있는 네 다섯 평 규모의 구멍 가게식 개인미용실의 개념을 벗어나 미용업체도 머리 만지기 뿐 아니라 대형매장에 세련된 인테리어, 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이다²⁴⁾.

11. 2000년~현재

1) 사회·문화적 배경

2000년 IMF로 인한 위기상황은 일단 극복하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10% 내외의 플러스로 성장하는 등 한국 경제는 지난 3년 간 급격히 회복되었다. 시장이 거의 완전 개방되고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세계경제 흐름과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대해 국내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화의 추세 속에 인터넷 보급 확산, 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디지털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²⁵⁾.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한국 경제는 대 중국 수출,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경쟁에 직면하였으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을 중

심으로 대중국 투자가 증대되었다²⁶⁾. 2002년 금융권으로부터 시작된 주 5일 근무 도입으로 전 산업에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주5일 근무는 정부, 국회, 경제계 등에서 도입시기의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으나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²⁷⁾.

2003년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대 미국테러를 발단으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유전과 가스전의 보고인 중앙아시아 및 극동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이들 지역의 에너지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국제석유시장의 시장교란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²⁸⁾.

2) 미용사적 배경

여성의 권한과 경제력이 강화되면서 여성소비시장으로 인식되어져온 뷰티 관련 산업이 급팽창했다. 또한 93년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미용실 프랜차이즈가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²⁹⁾. 2003년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제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7월 20일부터 시행·적용되고 있다.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성분으로 폼페는 제조 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의약품인 염모제·탈색제 등은 제조 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최종 소비자에 대한 시술까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2년 변화된 개방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국내 미용인에 의한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미용실 경영의 합리적 방안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직률의 현저한 감소, 예약제 정착, 교육 활성화, 대 고객 서비스 질 향상, 미용인 삶의 질 향상 등 미용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장점들이 적극 부각되고 있다³¹⁾. 그리고 최근 오픈이 더욱 활발해진 어린이 미용실·얼퍼머 전문 살롱·애니메이션 살롱·멀티뷰티숍 등 전문화된 테마 살롱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타깃 층을 위한 철저한 공간구성에 서부터 지역별 특수성을 살린 마케팅과 연계되어 경기불황에도 기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³²⁾.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미용환경변화의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1894년 단발령을 시작으로 1901년 최

초의 이발소와 1920년에 미용실이 생겨났고, 여성의 근대 교육과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헤어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1930년대 퍼머 기구와 약제 또한 등장하게 되어 1950년대 이후 미용실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로 미용기술의 발전은 계속되어졌으며 미용기구와 제품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현재 최첨단 기구와 모발건강을 위한 제품들이 등장하였고,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와 매장의 공간구성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미용종사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미용환경변화의 고찰을 통하여, 앞으로 국내 미용환경변화에 관한 미용사적인 부분이나 미용산업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가 필요 하며,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는 미용환경의 연구, 미용환경변화와 경영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미강(2002). 국가자격검정제도의 문제점과 미용업계의 실태에 관한 실증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백영자(1993). 한국의 복식. 서울 : 경춘사, p. 436.
- 3) 전선정(2001). 미용미학과 미용 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pp. 305-306.
- 4) 이규태의 역사에세이. 조선일보, 1999. 4. 23, 23면.
- 5) 유수경(1990). 한국여성 양장 변천사. 서울 : 일지사, pp. 29-30.
- 6) 민봉기(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서울 : 도서출판 장원, pp. 87-88.
- 7) 고주미(2000). 패션의 수용 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유미코스메틱(1995). 5-6월호, pp. 28-29.
- 9) 민봉기(1995). '앞의 책', pp. 89-91.
- 10) 전선정(2001). '앞의 책', pp. 320-322.
- 11) 권대순(1999). 한국 미용문화의 변천과 소비행태 연구 : 헤어디자인 및 미용실 경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7-28.
- 12) 전선정(2001). '앞의 책', pp. 324-325.
- 13) 민봉기(1995). '앞의 책', pp. 96-98.
- 14) 권대순(1999). '앞의 글', pp. 31-32.
- 15) 박길순(1992). 한국 현대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p. 49.
- 16) 한국미용예술문화원 (1999). 이·미용연감대전, pp. 35-44.
- 17) 민봉기(1995). '앞의 책', p. 103.
- 18) 박용현(1984). 해방 40년 가치의식 변화와 전반.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81-225.
- 19) 전선정(2001). '앞의 책', pp. 348-350.
- 20) 권대순(1999). '앞의 글', p. 37.
- 21) 전선정(2001). '앞의 책', pp. 357-358.
- 22) <http://db1.chosun.com/cgi-bin/gisam>, 1984. 2. 21
- 23) 민봉기(1995). '앞의 책', pp. 116-117.
- 24) <http://www.donga.com/news/micro-search.html>, 1995. 6. 4.
- 25) 유용주(2000). IMF체제 3간의 한국경제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pp. 1-2.
- 26) 유진석(2001).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향방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pp. 13-14.
- 27) 고정민(2002). 주 5일 근무와 소프트웨어산업의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p. 1.
- 28) 김현진(2003). 新 에너지 위기요인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삼성경제연구소, pp. 6, 21-22.
- 29) <http://www.hjp.co.kr/cgi-bin2>. 2001.5.6
- 30) <http://www.hjp.co.kr/cgi-bin2>. 2003.4.25
- 31) <http://www.hjp.co.kr/cgi-bin2>, 2003.4.28
- 32) <http://db1.chosun.com/cgi-bin/gisam>, 2003.5.14